

선거 개혁 첫 관문 통과...11월27일 표결

선거제 개혁안 의결

출석의원 과반 찬성편 통과
내년 4월 총선부터 적용
한국당 반발에 진통 예고
본회의 전 극적합의 전망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열차에 올라탄 선거제 개혁안이 29일 첫 관문을 통과했다.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은 소관 상임위(특위)·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로 이어지는 패스트트랙 절차 중 첫 번째 단계를 완료했다.

국회법 85조 2항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심사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90일, 본회의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의 기간을 거치게 된다.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은 이날 특위 의결까지 121일이 걸렸다. 상임위 심사 기간이 60일 가까이 단축된 셈이다. 다만, 이제 선거제 개혁안이 거쳐야 하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은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의 점을 고려하면 여야의 전격 합의 없이는 사실상 단축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본회의의 부의 후 상정까지의 기간은 문화상 국회의장이 법안이 부의되자마자 상정한다고 가정하면 60일 전부를 줄일 수 있다. 결국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러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제원 간사 등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의당·민주평화당)이 속도를 낸다면 선거제 개혁안은 90일 후인 오는 11월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까지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계산대로 11월 안에 선거제 개혁안이 본회의의 상정을 거쳐 확정된다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4개월 정도면 빠듯하긴 하지만 그래도 새 선거제 개혁안에 맞춰 선거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여야 4당의 판단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정개특위 의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남은 90일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개입의 롤인 선거법 특성상 제1야당과 합의 없이 처리

한 전례가 없어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패스트트랙 절차대로만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다.

여우곡절 끝에 선거제 개혁안이 본회의에 오르더라도 출석의원 과반을 확보해 무사통과할 것으로 장담하기는 어렵다.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합의했을 당시와 바른미래당·평화당 내부 상황 등이 달라져 이탈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제 개혁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민주당 의석수가 상당히 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덧붙여 지역구 추수에 따른 불만 기류가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선거제 개혁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여야가 어떤 방식으로든 '극적 합의'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한국당은 일단 합의보다는 특위 의결의 부담함을 알리는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생각이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원내에서는 합의의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밖에 나가서 시민 사회에 호소해야 한다"며 "20대 국회는 끝났고, 선거제든 예산이든 여권이 알아서 하고 우리 당은 보수 빅텐트를 치고 의원직 총사퇴 등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개특위는 '빈손종료' 눈앞

소위 구성도 못해...공수처·수사권조정 법안 법사위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선거제 개혁법안을 의결한 가운데 '쌍둥이 특위'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공전을 거듭하며 '빈손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유기준 사개특위 위원장은 "아직 사개특위 회의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며 "간사회동을 주문했지만, 진척이 없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을 심의하는 사개특위의 활동 기한은 정개특위와 마찬가지로 8월 31일이다.

오는 31일이 주말임을 고려할 때 사개특위의 활동 기간은 사실상 30일 하루만을 남겨놓은 것으로, 사개특위는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해 아무런 성과 없이 문을 닫는 모양새다. 사개특위에 계류 중인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진다.

사개특위는 지난 6월 말 활동기한을 2개월 연장했지만, 이후 제대로 된 법안 논의한 차례도 하지 못했다. 검경 개혁을 다루는 1소위원회 위원장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중 어느 곳이 맡을지, 1소위원회에 한국당 의원 1명을 추가할지 등을 놓고 각 당이 대립하면서 현재까지도 소위 구성 자체가 안 된 상태다.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도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가 추진된다는 이유로 한국당이 사개특위 논의 중단을 주장하며 뒷바퀴를 돌렸다. 다만 사개특위 위원 대부분이 법사위원인 만큼 사개특위 종료에도 실질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 4월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최장 180일의 상임위 심사와 최장 90일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 /연합뉴스

장병완 의원 미래성장동력산업 예산 대거 반영

장병완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이 발의·통과시킨 광융합법·에너지산업지원법이 지역경제 성장의 견인차 되고 있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0년 정부예산안에는 장 의원이 발의·통과시킨 지원법에 따른 광주 미래 성장동력 및 전략산업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장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시 광융합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지원사업(10억원), 광융합제품 글로벌 보급 지원사업(8억원) 등 광산업 예산과 초고압직류 기반 전력기기 국제공인사업인증 기반 구축 종합지원센터 구축(26억원) 등 에너지 산업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백운고교 철거 등 환경개선사업(73억원)과 남구 도시첨단 산업단지 진입도로(국가 20억원·지방 50억원) 예산 확보로 백운광장 교통난 해소와 활성



화가 촉진되고,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광산업과 에너지 산업 예산의 경우, 장 의원이 국회 산자

중기위원장 시절 직접 발의·통과시킨 법안의 본격 시행에 따른 성과로, 향후 광주시가 광융합 신산업과 에너지 중심으로 성장할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정부 예산안에 지역 현안 사업 예산들도 대거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장 의원은 남구의 전통 문화 시설인 고씨유를 VR 등 신기술을 접목한 '구슬 기반 인터랙티브 콘텐츠제작 및 인공지능 대화 플랫폼(10억)' 사업을 비롯해 '광산 세무서 신축' 예산까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 기자 kroh@

내년 총선 적용시 민주 16석 ↓·한국 13석 ↓·정의 8석 ↑

의원 300명·비례대표 확대·연동률 50%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의결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이 공조해 마련한 법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이 300명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보다 지역구는 28석 줄고, 비례대표는 28석 늘어나는 셈이다. 지역구 의석수는 서울 49→42석, 부산·울산·경남 40→35석, 대구·경북 25→22

석, 인천·경기 73→70석, 광주·전북·전남·제주 31→25석, 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 35→31석으로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정안에 담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비례대표 75석은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가 적용된다. 우선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총 300석 중 정당별 총의석수를 배분한다. 각 정당은 배분받은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남은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한 뒤 비례대표 75석 중 잔여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연합뉴스

각 정당이 총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정하면 내부적으로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자당의 6개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나눠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대 총선에서 123석을 얻은 민주당의 의석은 107석으로 16석 줄어들었다. 당시 새누리당(현 한국당) 또한 122석에서 13석 줄어 109석이 된다. 반면 당시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22석, 8석이 늘게 된다. /연합뉴스

"조국 검찰 수사 부적절" 민형배, 유튜브서 지적

민형배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검찰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수사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지역으로 복귀한 민 전 비서관은 유튜브 '민형배 정치브리핑'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치과정에서 검찰이 개입하는 것은 그 결과가 무엇이든 국민여론의 왜곡을 만들어 낸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 후보자에 대해 "업무능력이 증명되고, 도덕성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며 "청문회를 통해 의혹의 실제적 진실이 드러나면 사퇴든 임용이든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5·18 사형수' 김종배 전 의원, 평화당 재입당

'5·18 사형수' 김종배 전 국회의원이 민주평화당에 재입당했다.

15대 국회에서 국민회의 소속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지난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학생 투쟁위원회 총위원장으로 활동하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민주평화당 광주시장 후보 공천을 받았지만 중도 사퇴 후 탈당했다가 이번에 재입당했다. 민주평화당은 조만간 당무위원



회를 열어 김 전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선임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다 허물어진 집 한 구석이 라도 내가 채워 평화당이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돕고, 호남을 위해서 평화당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토지**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인근, 투자기치 좋음.
- 토지**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정가능.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우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병원** 광주 광산구 삼가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병원**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 : 645㎡(195.1평) 건물 : 1296.18㎡(392.1평) 지하1층 지상6층 **감정가 : 14억5천3백만원 최저가 : (56%)8억1천4백만원**
- 숙박시설**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토지 : 2042.2㎡(617.8평) 건물 : 2735.49㎡(827.5평) 지하1층지상5층 **감정가 : 24억4천5백8십만원 최저가 : (36%) 8억7천6백6십만원**
- 근린시설** 광주 서구 광천동 650-193 외2필지 토지 : 1747㎡(528.5평) 건물 : 3169.12㎡(958.78평) 지하1층 지상7층 **감정가 : 40억6천2백5십만원 최저가 : (70%) 28억4천4백만원**
- 공장** 곡성군 삼기면 경악리 토지 : 88181㎡(26674.8평), 건물 : 15264.64㎡(4617.6평) 지하1층지상3층 **감정가 : 124억3천8백7십만원 최저가 : (29%) 35억6천6백5십만원**
- 창고** 광주 남구 서동 토지 : 396㎡(119.8평) 건물 : 239.15㎡(72.3평) **감정가 : 5억8백7십만원 최저가 : (70%) 3억5천6백만원**
- 다가구(원룸)** 광주 북구 풍향동 767번지 토지 : 227㎡(68.7평) 건물 : 749.02㎡(226.6평)지하1층 지상3층 **감정가 : 6억7천7백만원 최저가 : 6억7천7백만원**
- 아파트** 광주 동구 학동 삼익세라믹 63평형 **감정가 : 2억8천6백만원 최저가 : 2억8천6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